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김남희<sup>1</sup>\*, 김경원<sup>2</sup>

<sup>1</sup>춘해보건대학 간호과,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Nam-Hee Kim<sup>1</sup>\*, Kyung-Won Kim<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ague Hanny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which might influ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78 nursing students in U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7, 201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PASW 18.0 statistics program.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r=.595$ ,  $p<.001$ )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396$ ,  $p<.001$ ).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is most influential factor explained 21% of varianc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o develop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curriculum and teaching program for enhancement of students'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

**Key Words : Self-efficacy,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 본 연구는 춘해보건대학 교내 학술연구비(2010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간호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을 키우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다[1]. 이 과정에서 간호학생은 실습병동 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하고 따라하면서 한사람의 간호사로 성장할 뿐 아니라 대상자가 가진 건강문제를 찾아내어 중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전인적인 간호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2]. 따라서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졸업 후 바로 임상간호사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상실습은 이론과 실무의 차이,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임상실습 지도교수 부족, 학생들의 실습의욕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배양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3]. 또한 신설 간호학과 증가, 기존 간호학과와 정원의 증가에 따라 실습학생 수가 증가와 임상실습 현장에서 대상자들이 학생들이 행하는 간호행위 거부로 인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제한되고 있다[4].

간호학생 때의 관찰에 국한된 실습이나 이론 교육과 실제 임상과의 차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임상에 나가지만 졸업 직후 독립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임상간호사로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5], 학생들이 실습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가 되어 바로 환자를 돌보아야

되므로 환자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 학교가 한 실습지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병동으로 학생을 보낼 수 없으며 4년제 간호학과와 3년제 간호과가 함께 실습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실습만족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6].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현장에 나가서 전문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킨다[7].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보다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4].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인들과 함께 일하는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8].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동안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간호와 실제로 수행되는 간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게 되고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고 보고하여 임상실습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9].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의 자존감, 자신감 및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간호의 생산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역할수행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인식정도를 사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4년제와 3년제로 나누어 전문직 자아개념과 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확인함으로써[11][12][13]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

으나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함께 본 연구는 없었다. 더욱이 학생 수가 증원되어 실습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는 간호사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간호사의 질적인 향상까지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의 위상을 재확립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광역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2학년 3개반 192명, 3학년 3개반 98명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은 방학 특강 기간 중에 자료수집을 하여 결석한 학생들이 많아 2학년에 비해 수가 적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의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278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4]이 개발하고 홍혜영[15]이 번안하고 수정한 자기효능감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5]의 연구에

서 Cronbach'  $\alpha$ 는 .86이었고 김영희[13]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2)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10]가 개발한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서원희[8]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도력 5문항, 간호기술 4문항, 융통성 6문항, 만족감 8문항, 의사소통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9, 12, 13, 18, 21, 23, 25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원희[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75이었으며 하부영역의 Cronbach'  $\alpha$ 는 리더십 .72, 간호기술 .73, 융통성 .81, 의사소통 .50, 만족감 .61이었다.

## 3) 임상실습 만족도

서원희[8]가 사용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로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9문항,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문항의 총 31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원희[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2이었으며 하부영역의 Cronbach'  $\alpha$ 는 실습교과 .66, 실습내용 .55, 실습지도 .86, 실습환경 .76, 실습시간 .88, 실습평가 .70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비교는 t-test, ANOVA를 시행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주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78명으로 여학생이 90.6%이었고, 남학생은 9.4%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69.1%이고 3학년이 30.9%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19세부터 38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22.06세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46.8%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79.5%가 좋다고 답하였으며, 대학생활은 53.3%가 만족해하였고, 학교성적은 중간이 70.5%로 가장 많았다. 간호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23.0%,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19.8%의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서는 69%가 만족하였고, 실습량에서 45% 그리고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53.2%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 구분                          | 명   | %    |
|---------------------|-----------------------------|-----|------|
| 성별                  | 여자                          | 252 | 90.6 |
|                     | 남자                          | 26  | 9.4  |
| 학년                  | 2학년                         | 192 | 69.1 |
|                     | 3학년                         | 86  | 30.9 |
| 연령                  | 25세 미만                      | 228 | 82.0 |
|                     | 25세이상-29세 이하                | 34  | 12.2 |
|                     | 30세 이상                      | 16  | 5.8  |
| 종교                  | 불교                          | 65  | 23.4 |
|                     | 기독교                         | 56  | 20.1 |
|                     | 카톨릭                         | 15  | 5.4  |
|                     | 없음                          | 135 | 48.6 |
|                     | 기타                          | 7   | 2.5  |
| 건강상태                | 좋다                          | 221 | 79.5 |
|                     | 보통이다                        | 43  | 15.5 |
|                     | 나쁘다                         | 14  | 5.0  |
| 대학생활 만족도            | 만족하다                        | 154 | 53.3 |
|                     | 보통이다                        | 103 | 37.0 |
|                     | 불만족하다                       | 27  | 9.7  |
| 학교성적                | 상                           | 42  | 15.1 |
|                     | 중                           | 196 | 70.5 |
|                     | 하                           | 40  | 14.4 |
| 간호와 지원동기            |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 6   | 2.2  |
|                     |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 64  | 23.0 |
|                     | 취업률이 높아서                    | 128 | 46.0 |
|                     | 부모님의 권유로                    | 55  | 19.8 |
|                     | 봉사직을 갖기 위해                  | 8   | 2.9  |
|                     | 해외로 갈 기회가 많아서               | 4   | 1.4  |
|                     | 본인이 가족의 질환이나 입원시에 받은 인상 때문에 | 13  | 4.7  |
|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하다                        | 192 | 69.0 |
|                     | 보통이다                        | 77  | 27.7 |
|                     | 불만족하다                       | 9   | 3.3  |
|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하다                        | 125 | 45.0 |
|                     | 보통이다                        | 105 | 37.8 |
|                     | 불만족하다                       | 48  | 17.2 |
|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 만족하다                        | 148 | 53.2 |
|                     | 보통이다                        | 99  | 35.6 |
|                     | 불만족하다                       | 31  | 11.2 |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3.50±.59점이었고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2.85±.34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가장 높은 영역은 간호기술로 2.94±.46점, 가장 낮은 영역은 리더십으로 2.79±.42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평균은 3.10±.56점이었고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교과로 3.54±.75점,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지도로 2.88±.79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

| 특성       | 항목       | 평균 및 표준편차 |          |
|----------|----------|-----------|----------|
| 자기효능감    | 리더십      | 2.79±.42  |          |
|          | 간호기술     | 2.94±.46  |          |
|          | 전문직 자아개념 | 융통성       | 2.91±.43 |
|          |          | 의사소통      | 2.84±.45 |
|          |          | 만족감       | 2.80±.45 |
|          | 소계       | 2.85±.34  |          |
| 임상실습 만족도 | 실습교과     | 3.54±.75  |          |
|          | 실습내용     | 3.05±.55  |          |
|          | 실습지도     | 2.88±.79  |          |
|          | 실습환경     | 3.25±.61  |          |
|          | 실습시간     | 3.06±.88  |          |
|          | 실습평가     | 3.05±.81  |          |
|          | 소계       | 3.10±.56  |          |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연구대상자의 성별(t=3.151, p=.002), 학년(t=-3.201, p=.002), 건강상태

(F=7.433, p=.001), 대학생활의 만족도(F=10.465, p<.001), 학교성적(F=9.829, p<.001), 간호학 선택동기(F=2.389, p=.029),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18.776, p<.001), 및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7.54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F=2.541, p=.081), 종교(F=.382, p=.821), 그리고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F=.171, p=.843)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성별(t=2.912, p=.004), 학년(t=-3.869, p<.001), 건강상태(F=7.497, p=.001), 대학생활의 만족도(F=16.580, p<.001), 학교성적(F=3.107, p=.046), 간호학 선택동기(F=5.076,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32.331, p<.001),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14.763, p<.001),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F=4.319,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연령(F=2.136, p=.120)과 종교(F=1.252, p=.289)는 전문직 자아개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t=3.022, p=.003),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6.112, p=.003),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12.390, p<.001),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F=5.790,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F=.210, p=.811), 학년(t=-1.580, p=.115), 종교(F=1.413, p=.230), 건강상태(F=1.343, p=.263), 대학생활의 만족도(F=2.868, p=.059), 학교성적(F=.423, p=.656), 간호학 선택동기(F=1.333, p=.243)에서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 특성                  | 범주                          | 자기효능감     |            | 전문직 자아개념  |            | 임상실습 만족도  |            |
|---------------------|-----------------------------|-----------|------------|-----------|------------|-----------|------------|
|                     |                             | 평균 및 표준편차 | t or F (p) | 평균 및 표준편차 | t or F (p) | 평균 및 표준편차 | t or F (p) |
| 성별                  | 여자                          | 3.47±.58  | 3.151      | 2.83±.34  | 2.912      | 3.06±.54  | 3.022      |
|                     | 남자                          | 3.85±.62  | (.002)     | 3.03±.33  | (.004)     | 3.40±.67  | (.003)     |
| 학년                  | 2학년                         | 3.43±.60  | -3.201     | 2.80±.33  | -3.869     | 3.06±.54  | -1.580     |
|                     | 3학년                         | 3.67±.55  | (.002)     | 2.96±.35  | (<.001)    | 3.18±.60  | (.115)     |
| 연령                  | 25세 미만                      | 3.49±.59  | 2.541      | 2.83±.35  | 2.136      | 3.09±.54  | .210       |
|                     | 25세이상-29세 이하                | 3.46±.64  | (.081)     | 2.90±.32  | (.120)     | 3.14±.69  | (.811)     |
|                     | 30세 이상                      | 3.83±.50  |            | 2.99±.29  |            | 3.03±.56  |            |
| 종교                  | 불교                          | 3.47±.66  | .382       | 2.86±.33  | 1.252      | 3.21±.60  | 1.413      |
|                     | 기독교                         | 3.45±.67  | (.821)     | 2.92±.39  | (.289)     | 3.09±.55  | (.230)     |
|                     | 카톨릭                         | 3.58±.67  |            | 2.89±.37  |            | 3.10±.50  |            |
|                     | 없음                          | 3.53±.54  |            | 2.81±.33  |            | 3.06±.55  |            |
|                     | 기타                          | 3.68±.26  |            | 2.84±.31  |            | 2.77±.56  |            |
| 건강상태                | 좋다                          | 3.57±.58  | 7.433      | 2.89±.34  | 7.497      | 3.12±.55  | 1.343      |
|                     | 보통이다                        | 3.32±.53  | (.001)     | 2.70±.33  | (.001)     | 2.97±.54  | (.263)     |
|                     | 나쁘다                         | 3.07±.70  |            | 2.68±.19  |            | 3.17±.78  |            |
| 대학생활 만족도            | 만족하다                        | 3.65±.57  | 10.465     | 2.95±.33  | 16.580     | 3.16±.56  | 2.868      |
|                     | 보통이다                        | 3.36±.54  | (<.001)    | 2.74±.30  | (<.001)    | 3.06±.55  | (.059)     |
|                     | 불만족하다                       | 3.25±.71  |            | 2.70±.36  |            | 2.89±.60  |            |
| 학교성적                | 상                           | 3.82±.61  | 9.829      | 2.97±.40  | 3.107      | 3.15±.73  | .423       |
|                     | 중                           | 3.49±.56  | (<.001)    | 2.83±.32  | (.046)     | 3.10±.52  | (.656)     |
|                     | 하                           | 3.27±.61  |            | 2.81±.37  |            | 3.03±.58  |            |
| 간호과 지원동기            |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 3.11±.32  | 2.389      | 2.65±.20  | 5.076      | 2.91±.46  | 1.333      |
|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 3.69±.59  | (.029)     | 3.03±.38  | (<.001)    | 3.21±.63  | (.243)     |
|                     | 취업률이 높아서                    | 3.51±.59  |            | 2.82±.30  |            | 3.05±.55  |            |
|                     | 부모님의 권유로                    | 3.34±.63  |            | 2.72±.36  |            | 3.07±.55  |            |
|                     | 봉사직을 갖기 위해                  | 3.42±.48  |            | 2.84±.21  |            | 2.96±.49  |            |
|                     | 해외로 갈 기회가 많아서               | 3.65±.41  |            | 2.75±.07  |            | 2.87±.44  |            |
|                     | 본인이 가족의 질환이나 입원시에 받은 인상 때문에 | 3.47±.47  |            | 2.87±.31  |            | 3.34±.36  |            |
|                     | 만족하다                        | 3.63±.55  | 18.776     | 2.95±.34  | 32.331     | 3.17±.57  | 6.112      |
|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 보통이다                        | 3.29±.55  | (<.001)    | 2.64±.22  | (<.001)    | 2.92±.48  | (.003)     |
|                     | 불만족하다                       | 2.76±.79  |            | 2.52±.31  |            | 3.01±.78  |            |
|                     | 만족하다                        | 3.61±.62  | 7.546      | 2.96±.36  | 14.763     | 3.27±.59  | 12.390     |
|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 보통이다                        | 3.51±.51  | (.001)     | 2.78±.28  | (<.001)    | 3.00±.40  | (<.001)    |
|                     | 불만족하다                       | 3.23±.62  |            | 2.70±.32  |            | 2.86±.67  |            |
|                     | 만족하다                        | 3.53±.59  | .171       | 2.90±.36  | 4.319      | 3.20±.58  | 5.790      |
|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 보통이다                        | 3.48±.59  | (.843)     | 2.77±.32  | (.014)     | 3.01±.43  | (.003)     |
|                     | 불만족하다                       | 3.50±.67  |            | 2.83±.26  |            | 2.89±.74  |            |

#### 4.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r=.595$ ,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r=.396$ ,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          | 자기효능감                | 전문직 자아개념             |
|----------|----------------------|----------------------|
| 전문직 자아개념 | .595<br>( $p<.001$ ) |                      |
| 임상실습 만족도 | .082<br>( $p=.170$ ) | .396<br>( $p<.001$ ) |

#### 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주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중회귀 분

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 $F=14.230$ ,  $p<.001$ ), 설명력은 21%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 $p<.001$ ),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 $p=.017$ ),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 $p=.050$ )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5>.

###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3년제 간호과 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69.0%가 간호학전공에 대해 만족하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46.0%가 취업률이 높아서, 23.0%가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와 같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간호과를 지원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상자의 11.2%가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 불만족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습학생과 환자와의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여 간호역할수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요인                  | 임상실습 만족도 |        |         |        |      |                |        |      |  |
|---------------------|----------|--------|---------|--------|------|----------------|--------|------|--|
|                     | B        | SE     | $\beta$ | t      | p    | R <sup>2</sup> | F      | p    |  |
| 상수                  | 67.224   | 13.171 |         | 5.104  | .000 |                |        |      |  |
| 전문직 자아개념            | .632     | .116   | .336    | 5.460  | .000 |                |        |      |  |
| 성별(남자)              | -5.768   | 3.302  | -.096   | -1.747 | .082 |                |        |      |  |
| 전공에 대한 만족도          | 1.176    | 2.021  | .036    | .582   | .561 | .207           | 14.230 | .000 |  |
|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 -3.440   | 1.438  | -.146   | -2.392 | .017 |                |        |      |  |
|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 -2.863   | 1.456  | -.112   | -1.966 | .050 |                |        |      |  |



실습학생의 14.8%와 19.1%가 환자 및 보호자와의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보고한 강현옥[16]과 양진주[17]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습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과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17.2%가 실습량에 불만족을 나타냈는데 이는 3년제와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옥[16]의 연구에서의 33.1%와 3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원희[8] 연구에서의 54.1%와 차이가 있었다. 총 임상실습 시간은 같지만 서원희[8]의 연구는 실습을 모두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실습을 반정도 끝낸 2학년이 69.1%를 차지하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습량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0점으로, 3년제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3]의 연구에서의 3.70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황성자[4]의 연구에서의 3.52점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므로[18]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2.85점으로 강현옥[16]과 서원희[8]의 연구에서의 2.7점보다 높았으나 이정애[9]의 2.90 점보다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선정과 표집과정의 차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특성 및 실습환경, 가치관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에서는 간호기술이 2.94점으로 가장 높게 리더십이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8][16]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평균은 3.10점으로 서원희[8]의 연구에서 2.60점과 강현옥[16]의 연구에서 2.90점보다 높아 본 연구대상자들이 실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위영역에서 실습지도

점수가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김영희[13]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실습지도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평균 3.00점 이상으로 나타나 실습 전 임교수 확충과 같은 실습지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습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의 만족도, 학교성적, 간호학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도 임상실습에서 남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13] 남학생수가 여학생수보다 훨씬 적은 경우이므로 본 결과를 확신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남자 간호학생에게 자신감을 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13]. 학년에서도 3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황성자의 연구결과[4]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간호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에 자신감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김영희는 간호학 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고[13], 황성자는 학년과 간호학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4].

전문직 자아개념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상태, 대학생활의 만족도, 학교성적, 간호학 선택동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현옥도 전문직 자아개념이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간호학 선택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16]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정애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9] 하나선과 박효미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도와 더불어 의사결정

과 간호사에 대한 소명의식 및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여[19] 전문직 자아개념은 많은 영향요인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나 간호전문가들이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되어야한다고 하였다[19].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수정은 임상실습 만족도는 교육내용의 확실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다른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6]. 김영희는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13]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만족도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개인마다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김영희[13]와 신은주[1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어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김문실[20]과 서원희[8]강현옥[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정애[9]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에 임상실습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교육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간호학과 학생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임상실습환경을 양적, 질적으로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간호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전문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결국 임상실습만족도까지도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이와 같은 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중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과 학생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적용함으로써 간호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이며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실습 중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Chan, D.(2002),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the

-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1(2);69-75.
2. Nath, C., Schmidt, R., & Gunel, E.(2006),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vary most with educational rank and ag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70(8);825-834.
  3. 박미영, 김순이(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6(1); 23-35.
  4.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2(2);205-213.
  5. 이운정, 김귀분(2008), 임상간호사의 이직경험, *대한간호학회지*, Vol.38(2);248-257.
  6. 한수정(2000),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6(1);132-146.
  7.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617.
  8. 서원희(2006), 간호전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9-22.
  9. 이정애(2004),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의 대한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Vol.10(3); 325-334.
  10. Arthur, D.(1995),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15(5);328-325.
  11. 강운숙, 조희, 노영숙, 부은희, 안금희(2006),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2(1);13-20.
  12. 성미혜(2010), 간호대학생의 학제 간 성취동기,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련성 비교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Vol.17(1);90-98.
  13. 김영희(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Vol.16(3);307-315.
  14.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2); 663-671.
  15.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7-28.
  16. 강현옥(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6-30.
  17. 양진주(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5(2);159-165.
  18. 신은주(2008),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기본간호수기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Vol.15(3);380-386.
  19. 하나선, 박효미(2009), 간호학생이 지각한 전문직 사회화가 역할갈등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Vol.15(2);47-56.
  20. 김문실, 임은주(2006), 서울소재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이화간호학회지*, No.40;116-124.

접수일자 2011년 9월 10일

심사일자 2011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12일